

일자리지원 · 인력양성 메카로 우뚝

전주상공회의소, 청년·시니어 등 1100여명 취업 알선 국가기술자격시험 통해 기초사무분야 우수인력 배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은 지역의 일자리 지원과 인력양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일자리지원센터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사무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주관하여 우수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시니어인턴십,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100여여명의 취업을 알선했으며,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5,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지역 취업난 해소 및 고용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내 많은 상공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장점을 접목하여 구인, 구직을 원하는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3년 설립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북도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계 맞춤형 훈련을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난해 329명의 훈련생 중 125명이 지역 내 관련 업종으로 취업했고 재직자(향상)과정을 통해 2,608명 훈련생을 배출해 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기업의 필요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1,000여개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파악(정기수요조사)과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변동 및 훈련 수요를 파악(상시수요조사)하여 지역단위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지난 26일 오전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1차 위원회가 열렸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인적자원의 일학습병행사업은 지난해 77개 지역기업이 참여하여 회사별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

이선홍 회장은 “일지리를 찾아 전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매년 6,000명~7,000명 등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고용과 인력양성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인력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과 지역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지난해에 28,000여명이 응시, 정보화시대 우수인력의 산실이 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도와 드립니다”

전북중기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예비)창업기업을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는 신생 스타트업 대상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이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큐베이터가 액셀러레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국가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참여기업 선정은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6개 대상국가 중 1개 국가 이상 진출계획이 있는 공고일(2019.3.27.)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 4월 3일, 4월 8일 총 3회에 걸쳐 팀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참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지역 발전 견인하는 구심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건협전북도회 정기총회성료 관련학과대학생 장학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7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1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했다고 밝혔다.

정대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해, 우리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위축 등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반면에 큰 성과가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소회”하면서 “협회에서는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건설공사 물량 확보와 회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건설관련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대처한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새만금사업 우대기준이 고시되어 기술형 입찰에 적용하던 규정을 종합심사제도의 공사까지 우대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2018년 6월 7일 개정 이후 지역업체가 새만금사업에 최대 40%까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급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27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지역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하는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 중심의 단결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 하는데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건설관련 다양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여 해결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사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가 전북도 자존감 회복에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람으로 미래

건설’을 실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총회는 지역 건설산업산업 환경 개선 및 회원 서비스 내실화를 목표로 ▶주주환경 조성 및 적정공시비 확보 ▶건설제도 합리적 개선 및 정부위탁사무 공정 수행 ▶회원 경영활동 지원 및 협회 활성화 ▶나눔·사랑 실천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

로 한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 의결과 전년도 결산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2019년 지역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전주대 이석민(토목환경공학과) 학생 등 지역내 대학교에서 추천된 건설관련학과 대학생 5명과 중·고등학교 20명 등 총 25명의 건설인 우수 장학생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 오늘부터 부산노선 3일 한정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오늘부터 30일까지 단 3일간 부산노선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일간의 행복-부산’라는 테마로 꾸러진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스타항공 부산출발 4개 국제노선 4월과 5월 탑승 항공권에 대한 특가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특가 항공권을 편도총액임 기준 최저가 △부산-오사카 52,400원 △부산-삿포로(신치토세) 59,400원 △부산-방콕 94,900원 △부산-코타키나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이벤트 기간

동안 부산지역 추천 관광지를 댓글로 표현해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특가 이벤트’는 기간은 짧지만 할인 폭을 크게 하여 알찬 이벤트로 준비했다”며, “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고객이라면 꼭 3일간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 앱 102.1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경기 지난해보다 둔화... 생산·소비 소폭 감소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총 5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중 전라북도 경기는 2018년 4/4분기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보합

세를 나타냈으나 소비는 소폭 감소했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1/4분기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동남권이 소폭 개선됐으나 제주권이 소폭 악화되었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